



# 비전을새롭게: 21세기를 위한 친족 세우기

by Leslie Scanlon, *Outlook* national reporter

---

## 미국장로교 제223차 총회 St. Louis, Missouri - June 16-23, 2018

---

장로교인들은 2018년 총회의 컨벤션 센터에서부터 City Justice Center로 수백명이 행진을 하여 개회예배에서 모은 47,200 달러의 헌금을 전달하였다. 미국장로교회가 모은 헌금은 벌금을 내거나 보석금을 낼 여력이 없는 사소한 범죄로 수감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한 주일 중간에 진행된 집회는 “우리를 교회와 거리로 몰아내는 사역과 사랑에 대한 열정”이라고 미국장로교회 정서기인 허버트 넬슨 (J. Herbert Nelson)은 말하였다

이것은 기후 변화, 국경에서 자녀들과 분리된 이민자 부모, 총기 폭력과 같은 당일 소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총회였다.

계속해서 제기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샬롯에 소재한 애비뉴 장로교회 (The Avenue Presbyterian Church)의 목사인 Floretta Barbee-Watkins는 설교하길 낙담하기 쉬울 때마다 예수님은 믿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이 피 곤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전하였다.

Barbee-Watkins는 미국장로교회는 “나쁜 비스킷을 만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형제 자매와 교회의 긴급한 필요를 다루는 “자발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라고 그녀는 도전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일어 나십시오, 새로운 비스킷을 만들어 봅시다.”

**기후 변화.** 총회는 화석 연료 회사로부터 미국장로교회의 지분을 매수하는 대신 총회의 투자로 교단의 Mission Responsibility를 통해 석유 및 천연 가스 회사들과의 기업 참여를 계속하기 위해 332-178 표로 투표했다.

이것은 40 개 노회가 화석 연료 매각을 위한 헌의안을 지지하면서 교회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투자를 활용하여 산업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실택에 머무르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총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안 중 하나였다.

**가족 분리.** 총회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나 드는 이민자들에 대한 부모의 자녀 양육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484-34로 통과시켰다.

연방 당국은 분리된 부모와 자녀들을 즉시 재결합시키고, 구금보다는 가족을 “공동체의 보살핌 하에” 배치 할 것을 촉구한다.



**상회비.** 총회는 2019년에 회원 1명당 8.95 달러, 2020년에 8.95 달러의 상회비를 승인했다. 이는 2018년의 회원 상회비 7.73 달러에서 증가한 것이다. 이 모임에서 끊임없는 긴장감의 원천이 되었다. 마약 중독에서부터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소규모 교회를 통한 사역에 이르는 긴급 사역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상회비 기금을 너무 많이 인상하면 중간공의회와 개체교회/회중의 저항을 불러온다.

**앞으로 나아갈 길.** 총회는 2016년 총회가 교단 최고 기관에서 필요한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창안된 Way Forward 전권위원회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조치는 미국장로교회, A Corporation (교회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위한 새롭고 평등한 행정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그 제안의 일부로서 재정 지속 가능성 연구 및 미국장로교회 자원을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지도력.** 4번의 투표를 통하여 공동총회장으로 Vilmarie Cintrón-Olivieri와 Cindy Kohlmann을 선출하였다. 이 둘은 교육자이자 중간공의회 리더, 사역 장로와 목사로서, Cintrón-Olivieri가 말한 것처럼 “대담하고, 강렬하고, 담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여성”들이다. 그녀는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푸에르토 리코 출생자이다.

**인종과 불평등.** 설교부터 행진, 헌의안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인종차별과 조직적 불평등에 대처할 필요가 이 모임을 통해 울려 퍼졌다. 그 헌신의 표시로, 총회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Martin Luther King Jr.)의 “버밍햄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미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에 추가하는 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352-160 표로 통과했다.

**세계 문제.** 총회는 예멘, 한국, 남 수단, 니카라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한 가지 확실한 예로 총회는 미국장로교회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의 갱단 관련 폭력 사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살바도르 교회를 파트너로 삼기로 합의했다. 폭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망가게 한다.

**#미투.** 총회는 474-19 표로 미국장로교회에서 목회자 성추행의 생존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도록 증언했다. 성적 학대의 생존자를 위한 특별 전담반을 위임하고 교단에 제기된 성추행 혐의의 수를 매년 보고해야 한다.

**사회 정의.** 이번 총회는 공적 옹호 위원회의 영향력에 있었다. 이는 사형 선고에 대한 유예를 선언했다. 이는 장로교인들에게 총기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성령의 움직임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모든 성적 지향의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성을 확인하기 위해 투표했다. 본 총회는 세상에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장로교인들이 믿는 바입니다.”

Visit [pres-outlook.org](https://pres-outlook.org) for more.

The Presbyterian  
**OUTLOOK**